

광주·전남 신생아 울음소리 10년 새 ‘반토막’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광주 7400명·전남 7900명 그쳐
담양·구례·보성 등 저출산 심각
전남지역 조사망률은 전국 최고

광주·전남지역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집계된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74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1만 4392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7900명이 태어나 지난 2012년 1만699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2017년까지 1만 명대를 간신히 유지하다가 2018년 9105명으로 1만명선이 붕괴된 뒤 2019년 8364명, 2020년 7318명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21년에는 7956명으로 600명가량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다시 7400명으로 떨어지며 6.4%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600명, 서구 1200

명, 남구 1000명, 북구 2200명, 광산구 2300명 등으로 동구가 가장 적고 광산구가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2020년 9738명으로 1만명선이 붕괴된 뒤 지난해 7900명으로 떨어졌다.

기초단체별로는 담양,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장성, 진도, 신안이 100명 가량으로 지난해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적게 들린 지역이었으며 순천 1500명, 여수 1300명 등 1000명 단위를 넘긴 곳은 동부권 2곳뿐이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지역 사망자 수는 올해 처음으로 9000명대로 올라섰다. 10년 전인

2012년 6874명에서 2015년 7000명대로 올라선 뒤 조금씩 증가해오다가 지난해 9400명을 기록한 것이다.

전남지역 사망자 수는 10년 전인 2012년 1만6766명에서 1만7000명대로 소폭 증가, 감소를 반복해왔지만, 지난해 2만 900명으로 2만명선을 돌파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출생·사망자 수인 조출생율, 조사망률 모두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출생율은 4.3명으로 경북, 대구, 경남, 부산 등과 함께 제주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를 맴돌았으며 조사망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이 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 조출생률은 5.2명이었으며 조사망률은 6.5명이었

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감소 추세다. 광주지역의 경우 10년 전인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전남은 지난해 0.97명을 기록했다.

한편, 지역의 상황을 반증하듯 전국 기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글로벌모터스, 기술직·일반직 공개채용

AI 역량검사 공정성... 38명 선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2023년 1차 일반직 및 기술직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22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보충과 전기차 기반구축(AX_EV) 조기안정화를 위한 인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직 29명과 일반직 9명(경력사원 4명 포함) 등 모두 38명을 공개 채용키로 했다.

이번 채용은 대규모 정기 공개채용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시 공개채용 방식의 하나로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보전부, 시설관리부 등 기술직과 일반직, 장애인 제한경쟁과 보훈 분야 제한경쟁을 포함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23일부터 3월7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3월8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AI 역량검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건강검

진 등을 거쳐 3월 말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사 예정일은 4월 중순이다.

이번 채용 역시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 여부, 재산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국가직무능력기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 채용기관의 업무 대행과 AI 역량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와 평가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채용사이트(ggm.recruiter.co.kr)를 통해 가능하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이 올해 첫 공개채용인데 지역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중장년층은 물론 여성들도 많이 응시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기차 기반시설 구축이나 생산 단계에 따라 꾸준히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50여개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지역 기업인들의 새로운 기업가정신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의 “새로운 ‘기업가정신’ 확산 앞장”

지속가능 미래 위한 선포식 가져 일자리 창출·친환경 경영 등 다짐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지역 기업인들의 새로운 기업가정신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50여개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참여한 이번 선포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역 기업인들의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정창선 회장은 선포식에서 “기업이 경

제와 사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 개별 기업뿐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전체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렵고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업보국이라는 일념으로 경영에 매진했던 과거의 기업가정신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와 인구절벽,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위기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기업인들은 새로운 기업가정신의 실천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제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 등 윤리적 가치 제고 △조직구성원 존중

등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실천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5개 명제를 공유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기업의 역할에도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역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이 경제는 물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또한 그 역할을 확대해감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가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지원

동구와 업무협약... 금리감면

광주은행은 지난 21일 동구청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동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12억원의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동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동구에서 5.0%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광주은행은 최대 1.0%p(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감면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광주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총 2억3천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69억원

디지털교육·안전·피해예방 3개분과 구성 시민활동 추진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시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KT는 디지털 전환으로 편의성이 커진 만큼 부작용도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22개 전문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디지털 시민 One-Team’을 출범한 바 있다.

이에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디지털

안전·공존·책임은 핵심가치로 우리지역 디지털 보급 특성에 맞춰 디지털 교육·안전·피해예방 3개의 분과를 구성해 디지털 시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 분과에서는 △아동의 올바른 디지털 마인드 확립을 위한 디지털 명탐정 과정 △어르신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IT를 활용한 치매예방교육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와 전남대 학생을 랜선으로 연결해 고령자 만학도들의 수능을 대비하는 디지털 지원교육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랜선 한국어 교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디지털 명탐정’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사이

버 폭력 예방교육으로 학생 스스로가 디지털 시민 명탐정으로 활동하며 사이버 언어폭력, 악성 댓글과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AI 스피커(기가지니)와 전용 교구 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디지털 피해 대응력을 기를 수 있게 구성해 관련 교육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T는 기존 AI 스피커에 IPTV 서비스인 ‘지니TV’를 추가 연동해 STB(셋톱박스) 기반 확장된 개념의 AI 케어서비스를 이달 진도보건소에 전국 최초로 선보이고 어르신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등 KT텔레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KT 전남전북광역본부 ‘디지털 시민’ 눈길